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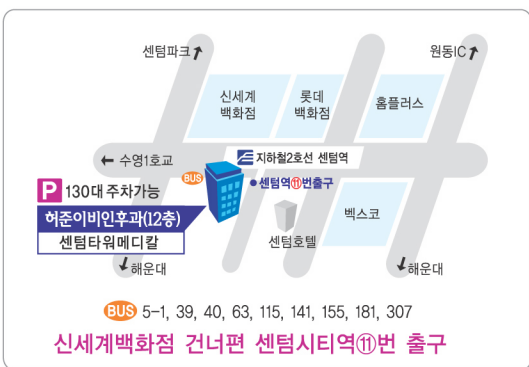
당일 수술 및 퇴원이 가능합니다. (낮병동 입원)

진료안내

- 귀질환** • 난청, 이명(귀울림), 이개 및 외이도 질환, 어지러움
보청기, 안면마비, 급만성 중이염
- 코질환** • 코골이, 코막힘 및 코감기, 축농증, 물혹, 비중격만곡증
알레르기 비염 및 만성비염
- 목질환** • 목감기 및 목살갍기, 편도선염, 후두염, 후두암, 침샘염
구내염, 목이물감, 천목소리
- 소아ENT** • 소아중이염, 소아비염, 소아축농증, 소아코골이, 소아난청
- 미용성형** • 보톡스, 필러, 피어싱

- 코골이 클리닉
- 영양치료
- 보청기 클리닉
- 예방접종

- 진료시간** • 평 일 : 오전 9시15분~오후 6시30분
(수술예약) • 토 요 일 : 오전 9시15분~오후 1시
• 점심시간 : 오후12시45분~오후 2시
• 공 휴 일 : 오전 9시15분~오후12시30분
• 일 요 일 : 휴 진



소재(본)기(화)051-246-5911

허준 이비인후과 상담문의: 781-6226(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2로 20 (우동 1516) 센텀타워메디칼 12층

편안한 목넘김과 기침
인후두역류

www.hurjunent.co.kr

-보호자와 환자를 위한 안내서-

“허준이비인후과”에서는
가벼운 감기에서 수술까지 귀, 코, 목의 모든 것



인후두역류 질환이란?

인후두역류 질환이란 위의 내용물이 거꾸로 식도로 넘어와 후두와 인두로 역류하여 점막에 손상과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위 내용물 중 위산은 강한 산성소화물질로 위 점막 이외의 점막에는 상당한 자극을 가해 염증을 유발합니다. 최근에는 인두이물감이나 구취 증세를 유발하는 기질적 이상으로 위-식도 역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한편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불편한 경우는 위산이 식도까지만 역류되고 후두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경우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비감염성 후두염의 가장 흔한 원인인 인후두역류 질환은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환자의 20~30%에 해당되며, 음성 및 후두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반 이상이 인후두역류 질환과 관련이 있으리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77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

인후두역류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내과적인 위식도 역류에 의한 증상, 즉 전형적인 가슴앓이를 호소하는 식도염과 달리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인두 이물감**
목에 뭔가가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 천목소리**
목소리가 쉽게 잠깁니다.
- * 습관성 헛기침(만성적인 목청소)**
인두 이물감을 느껴 목에 낀 것 같은 것을 제거하려는 헛기침을 '흠~흠'하면서 목을 가다듬어도 개운치 않습니다.
- * 만성기침**
가래는 적지만 만성적인 기침이 계속됩니다.
- * 목의 점액(담) 과다**
- * 가슴앓이**

인후두역류 질환의 치료

인후두역류 질환의 치료는
첫째, 생활습관개선(Life-style modification)
둘째, 식이 조절(Dietary modification)
셋째, 약물(medication)치료
세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심할경우 외과적 수술(Surgery)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에는 주로 인후두역류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위산의 분비를 강하게 억제하는 Proton Pump Inhibitor (PPI:Lansoprazole)를 2~3개월 이상 투여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 요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인후두역류 질환의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할 식생활 습관

- 가** 많을 수록 인후두역류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 커피, 홍차, 탄산음료, 토마토 주스 등을 마신다.
- 담배를 피운다.
- 술을 자주 마신다.
- 기름진 음식이나 초코렛을 자주 먹는다.
- 복부비만이 있다.
- 꼭 죄는 옷을 입는다.
- 잠자기전 2시간 안에 식사를 한다.

